



지표로 보는 이슈

제117호 | 2018년 3월 19일
발행처 | 국회입법조사처
발행인 | 이내영
www.nars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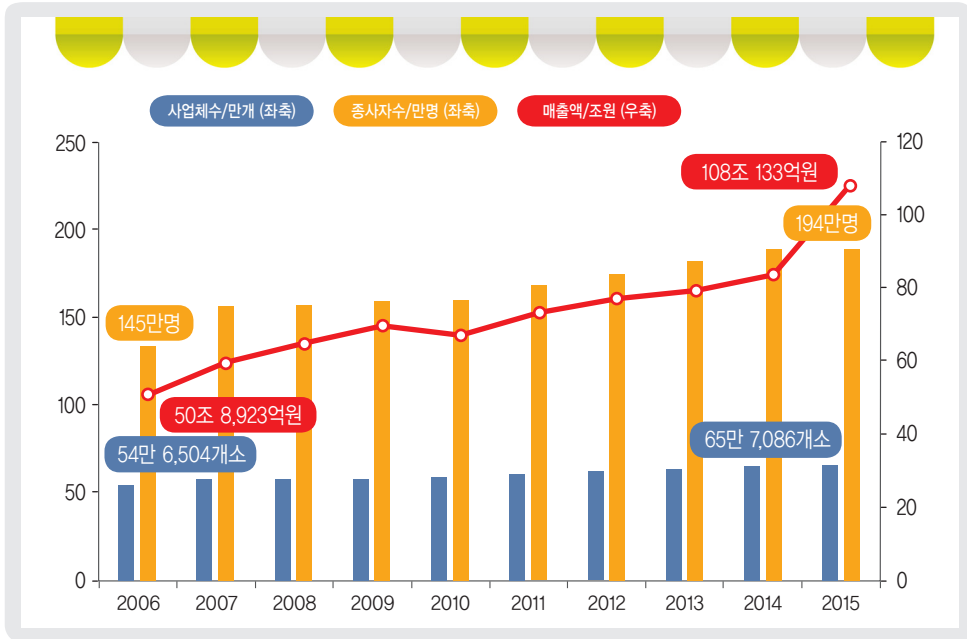
외식산업의 구조 변화 추이와 시사점

- 식품산업은 크게 음식료품 제조업과 외식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외식산업 규모는 사회·경제적 환경 변화로 계속 증가추세임
- 최근에는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가맹점형 영업, 이동음식점형 영업, 타 업종과의 복합 영업 등 외식산업의 영업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음
- 식생활 패턴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 및 위생·안전관리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

외식산업의 구조 변화 추이와 과제

외식산업의 규모 변화 (2006~201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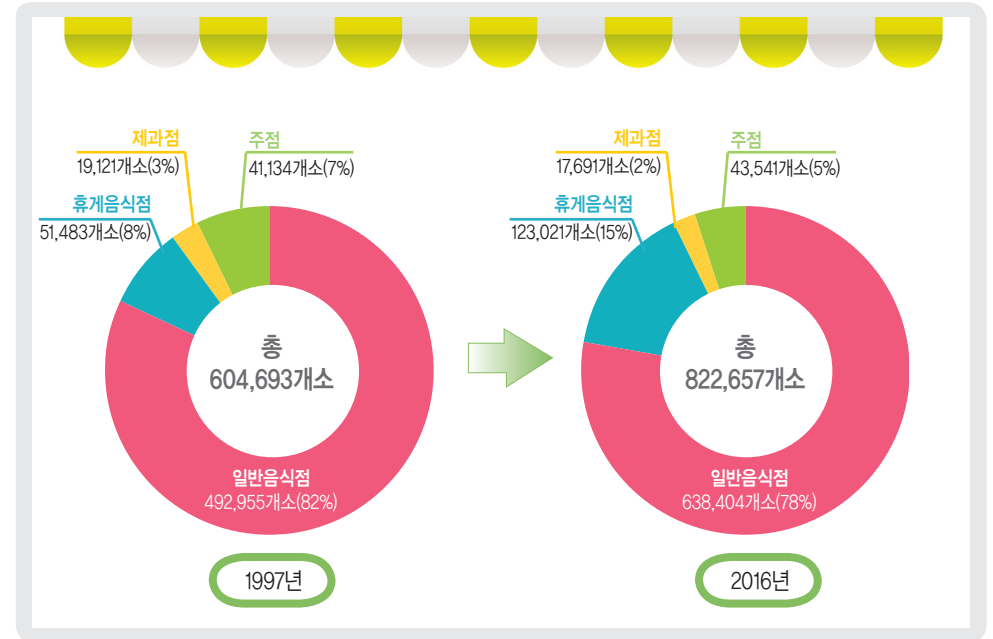


주: 1) 도소매업조사의 식품산업 중 음식점 및 주점업을 외식산업이라 정의하였으며, 이들은 「식품위생법」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함
 2) 종사자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(종사자수 1인 이상), 매출액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(10인 이상 사업체)를 정리함

자료: 통계청, 『도소매업 조사』, 각 연도; 농림축산식품부, 『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』, p.471,을 재정리함

- 최근 10년 간 외식산업은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- 외식산업의 총 사업체수는 2006년 54만 6,504개소에서 2015년 65만 7,086개소로 지난 10년간 20.2% 증가하였음
 - 외식산업 종사자수는 2006년 145만 명에서 2015년 194만 명으로 33.8% 증가하였음
 - 외식산업 매출액은 2006년 50조 8,923억 원에서 2015년 108조 133억 원으로 112.2% 증가하였음

외식산업 내 영업 종류별 변화 (1997~2016년)



주: 1) 일반음식점업은 한식, 중식, 일식, 서양식, 기타 외국식음식점업체수의 합이며, 주점업은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그 외 기타 주점업체수의 합임
 2)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업 제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주점을 외식산업으로 정의하고, ()는 전체 외식산업에서 각 영업별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처, 『2017 식품의약품통계연보』, 2017.12., p.73,을 재정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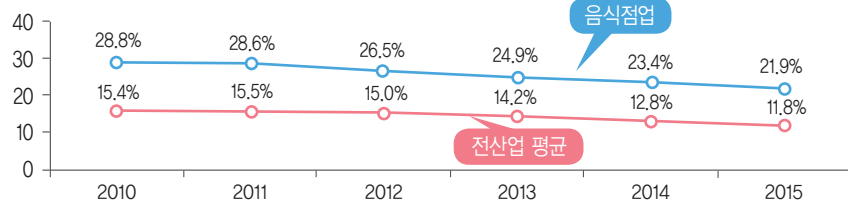
- 외식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2016년 현재 638,404개소로 78.0%를 차지함
 - 최근 외식산업 영업형태의 다양화와 복합화로 인해 외식산업에서 차지하는 일반 음식점의 비중은 1997년 82.0%에서 2016년 78.0%로 4.0%p 감소하였음
- 반면, 커피나 주스류를 판매하는 비알콜음료점 등 휴게음식점이 외식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8.0%에서 2016년 15.0%로 7.0%p 증가하였음
 - 휴게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외식산업계의 영업 형태가 제공 방식 및 경로, 타 산업과의 복합형 등 다변화하고 있으나 현 「식품위생법」상 식품접객업분류는 이들 영업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
외식산업의 폐업 및 가맹점 비율 변화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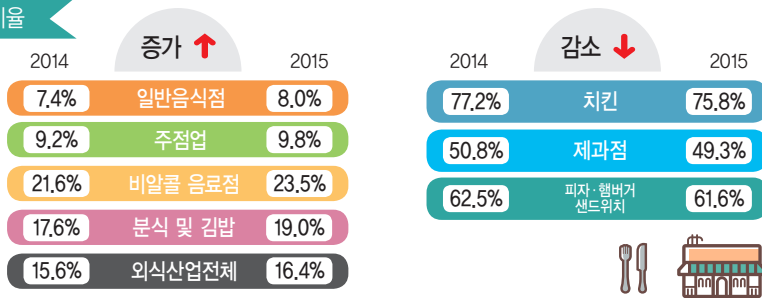


-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식산업은 매출액 등 규모가 양적 측면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영업 이익률이 낮은 영세한 산업임
 - 2015년 전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체수 91.9%, 종사자수 85.4%로 식품제품제조업에 비해 높지만 매출액은 56.3% 수준으로 영세함
- 외식산업은 신규 진입 영업자 비율이 높고 자영업률이 높은 산업이나 최근 폐업률이 타 산업보다 두 배 이상 높고, 가맹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
 - 외식산업의 영세성과 폐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외식산업의 식자재 공급 등 외식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, 가맹사업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
- 향후 외식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 패턴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「외식산업진흥법」에 따른 「외식산업진흥계획」을 수립하고,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산업 구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업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·안전관리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 - 소비자의 다양성과 외식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「식품위생법」의 식품접객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점 및 주점업 등 관련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외식산업계에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맹점형 영업, 이동음식점형 영업(출장, 배달, 푸드트럭, 통신판매 등), 타업종과의 복합 영업(키즈 카페, 동물 카페) 등에 대한 영업을 「식품위생법」 영업에 포함시켜 적절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
 - 식품제조가공업 중심의 식품위생관리체계에서 외식산업의 확대와 구조변화를 반영한 외식산업의 식품위생관리방안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

폐업률



가맹점 비율



주: 폐업률은 폐업자 대비 신규사업자의 비율이며, 가맹점 비율은 영업종류별 업체수 대비 가맹점수의 비율임

자료: 한국외식업중앙회, 「산업인력현황보고서-음식서비스산업」, 2017.7., p.56.;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: 통계청, 「프랜차이즈(가맹점) 통계」, 2017.7.20., p.4를 계산하여 재정리함

- 외식산업은 도소매업조사의 산업 분류 중 폐업률이 가장 높은 산업임
 -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규 사업자 진입 증가로 폐업률은 2010년 28.8%로 높았지만 2015년에는 21.9%로 감소하였음
 - 폐업률 감소는 산업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사업자 진입 감소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음
- 외식산업의 가맹점 비율은 2015년 16.4%로 2014년(15.6%)에 비하여 0.8%p 증가하였으나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, 과당경쟁, 식품안전 사고 등의 역기능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- 최근 식품안전 사고와 가맹사업 사건으로 치킨전문점, 제과점, 피자·햄버거·샌드위치점 등의 가맹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관련 통계 사이트 통계청 「국가통계포털」(<http://kosis.kr>)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「식품산업 통계정보」(<http://www.atfis.or.kr>), 식품의약품안전처 「식품의약품통계연보」(<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574&area=01>), 농림축산식품부 「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연보」(<http://www.mafra.go.kr/mafra/360/subview.do>)



지표로 보는 이슈는

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

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·정책적 개선방안 등

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

발간되고 있습니다.

www.nars.go.kr

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

(우)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(국회입법조사처) Tel. (02)788-4510(대)
ISSN 2383-563X